

## 시편 49편의 편집사적 이해

박영준\*

### 1. 들어가는 말

시편은 여러 가지 양식(Gattung)을 갖고 있으며 그 중 몇 개의 시편은 지혜시로 분류된다. 시편 49편 역시 지혜시에 포함된다. 궁켈(H. Gunkel)과 모빙켈(S. Mowinckel)은 시편을 양식 비평적 방법에 따라 연구하였다.<sup>1)</sup> 특히, 궁켈은 모든 시편을 양식에 따라 분류하였고 각 시편들의 삶의 자리를 연구하였다(예를 들어, 탄생, 결혼, 병듦, 감사 축제, 빈곤, 전쟁, 왕의 등극). 그의 제자인 모빙켈은 그의 스승인 궁켈과는 달리 시편의 삶의 자리를 제의로 보았으며, 시편은 성전 공동체의 제의 안에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시편의 연대를 바벨론 포로기 이전으로 정하였다.<sup>2)</sup> 이러한 두 명의 학자의 이론은 시편 연구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시편의 삶의 자리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각각의 시편은 순수한 하나의 양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양식을 혼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sup>3)</sup>

---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 구약학

- 1) H. Gunkel and J. Begrich, *Einleitung in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3), 381-397.
- 2)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I. Psalm 1-41*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2000), 22. 모빙켈의 신년 축제에 관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정우, 『시편 89편: 그 문학과 신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39-74.
- 3)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I. Psalm 1-41*, 22-23.

시편 49편은 분명히 지혜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적 요소가 시편 내에서 분명히 우위를 갖고 있지 않는다. 즉, 시편 49편을 지혜시로 단순히 분류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시편 49편에서는 지혜시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탄원시적인 요소와 종말론적인 특징이 발견된다.<sup>4)</sup> 시편 49편의 통일성과 편집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필자는 시편 49편의 편집사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을 학자를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시편 49편의 편집사적 발전을 부정하며, 이 시편이 원래부터 통일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보는 그룹이다. 이 그룹의 학자들은 시편의 최종 본문 안에서 각 시편의 신학적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플레인스(J. D. Pleins)는 “시편 49편의 연결 구조”를 밝히려고 함으로써, 시편의 통일성과 함께 시편 49편 안에 있는 ‘죽음의 신학’을 이야기한다.<sup>5)</sup> 그의 의견에 의하면 시편 49편은 마치 양파처럼 각 구절이 교차 배열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플레인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문의 교차적 배열을 유심히 보면, 우리는 시편 본문의 통일성과 죽음의 신학에 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시편 49편의 편집사적 발전이라는 연구와는 다른 결론에 이른다. [...] 나의 연구는 본문을 편집적 추가나 확장 없이 통일체로써 다루고 있다.”<sup>6)</sup> 그는 또한 시편 49편을 언어적 틀 안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편 49편이

4) B. Weber, *Die Psalmen 1-72* (Stuttgart: Kohlhammer, 2001), 223-227은 “시편 49편은 지혜와 제의의 혼합이다.”라고 하였다; P. Raabe, *Psalmsstructures*, JSOT.S 104 (Sheffield: JSOT, 1990), 87은 “시편 49편의 장르는 일반적으로 지혜 시편으로 분류되나 시편 기자에 의해 다른 장르의 요소가 추가되었다. 5-6절은 애가이고 16절 이하 구절은 구원 신탁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5) J. D. Pleins, “Death and Endurance: Reassessing the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y of Psalm 49,” *JSOT* 69 (1996), 19-27.

6) J. D. Pleins, “Death and Endurance: Reassessing the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y of Psalm 49,” 19.

내세와 관련이 있지 않고 철학적 범위 안에 있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

1) 지혜자의 구원받음, 2) 부자와 같은 미련한 자의 죽음.

플레인의 이러한 해석은 상징적이며 은유적이다.

굴더(M. D. Goulder) 역시 시편의 은유적 해석에 주력하고 있다.<sup>7)</sup> 그는 무엇보다 시편 49편이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편 49편의 어조는 46편이나 47편 보다 어둡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 가능한 정치적 배경에 의한 것이지 지혜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 따라서 시편 49편은 억압받는 가난한 자와 희망에 대한 지혜시가 아니다.<sup>8)</sup>

그는 시편 49편의 주제가 죽음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퍼듀(L. G. Perdue)는 시편 49편을 질문과 대답이 있는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주장한다.<sup>10)</sup> 김정우 역시 시편 49편을 수수께끼와 그에 대한 실마리와 답이 있는 지혜시로 생각한다.<sup>11)</sup> 김정우는 이 시를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크게 세 연으로 나눈다. 1-4절은 수수께끼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5-12절, 13-20절은 수수께끼이며, 후렴인 12절과 20절은 각각 수수께끼에 대한 실마리와 해답을 제공한다고 한다.<sup>12)</sup>

두 번째 그룹은 시편 49편이 후대 편집을 통해 보충되었다는 입장이 다. 슈미트(A. Schmitt)는 시편 49편의 양식에 대해서 지혜 문학의 토우

7) M. D. Goulder,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JSOT.S 20 (Sheffield: JSOT, 1982), 196: “고라 시편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은유적 언어가 사용되었다.”

8) M. D. Goulder,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184ff.

9) M. D. Goulder,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184ff.

10) L. G. Perdue, “The riddles of psalm 49,” *JBL* 93 (1974), 533-542.

11)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7-40.

12)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19-20.

피(10절, 8-9절, 17절, 스피치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 아이디어들의 집합)와 개인 탄원시의 요소(5-6절, 15절, 16절)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3)</sup> 그는 “시편 저자는 그가 시편 49편을 지혜의 노래로 썼을 당시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위해 탄원시적인 요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sup>14)</sup> 뿐만 아니라 언어분석을 통해서 시편 49편의 저작 시기를 매우 후대로 잡았다.<sup>15)</sup> 베버(B. Weber)는 “시편 49편은 지혜와 제의의 혼합물의 한 예”라고 주장하였다.”<sup>16)</sup> 크로프트(S. J. L. Croft)는 내세에 관한 부분에 지혜 본문이 추가되었음을 주장하였다.<sup>17)</sup> 라브(P. Raabe) 역시 시편 49편에 지혜 요소와 함께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5-6절은 탄원시를 생각나게 하며, 15절은 감사시를, 16-17절은 구원 제의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는 12절과 20절에서 선문답적 수수께끼(riddle)의 확화된 형식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였다.<sup>18)</sup> 두 번째 그룹은 시편 49편의 구조나 양식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그들의 해석은 논리적으로 약한 결론을 가진 채 불완전하게 머물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시편 49편의 편집적 성장에 대해 긍정하고 시편의 각 부분의 편집사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이 그룹의 학자들은 시편 49편이 두 단계에 걸쳐 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카세티(P. Casetti)는 10-14절과 후렴구인 12, 20절을 문학적으로 내용적으로

13) A. Schmitt,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Alten Testament,” *fzb* 10 (1973), 205-212.

14) A. Schmitt,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Alten Testament,” 212.

15) A. Schmitt,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Alten Testament,” 249-252.

16) B. Weber, *Die Psalmen* 1-72, 223-227.

17) S. J. L. Croft,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in the psalms*, JSOT.S 44 (Sheffield: JSOT, 1987), 162.

18) P. Raabe, *Psalmsstructures*, 87.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부분을 기본 시편(Grundpsalm)이라고 부르며, 시편 49편은 단순한 합성이 아니라 ‘확장된 통일체’라고 주장한다.<sup>19)</sup> 호스펠트(F. L. Hossfeld)와 쟁어(E. Zenger)는 카세티의 이러한 주장을 이어받았다. 그들은 기본 시편이 전도서를 받아들였고 새로운 해석과 함께 편집을 통해서 성장하였다고 주장한다.<sup>20)</sup>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해석에는 ‘가난한 자 신학’(Armentheologie)이 포함된다고 하였다.<sup>21)</sup> 굴데(S. U. Gulde)는 그의 구조, 언어 분석에 따라 여섯 구절(표제, 5, 8, 10, 11, 15절)이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2)</sup>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시편 49편에는 지혜 요소와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언제, 왜 이 시편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것들이 최종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의 시편 49편에 대한 해석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자의 논문의 핵심이다.

시편 49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가 내용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sup>23)</sup> 그리고 내용,

19) P. Casetti, *Gibt es ein Leben vor dem Tod? Eine Auslegung von Ps 49*, OBO 44 (Freiburg: Universitätsverl., 1982), 33.

20)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NEB 29 (Würzburg: Echter-Verl., 1993), 300.

21) 시편 49편은 직접적으로 가난이나 부와 관계되어 있지 않다. 즉, 이 시의 목적이 가난한 자를 위로하거나 부자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집자는 재물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가, 부자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다. 이밖에 가난한 자나 가난한 시인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정우, 『시편 89편: 그 문학과 신학』, 214-244.

22) S. U. Gulde, *Der Tod als Herrscher in Ugarit und Israel*, FATII/22 (Tübingen: Mohr Siebeck, 2007), 181-203.

23) K. Seybold, *Die Psalmen*, HATI/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9: “각각의

모티브적인 다양함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시편의 형성과 함께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편 49편의 해석에 있어서 시편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단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에 대해서 카이저(O. Kais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시편 연구의 과제는 시편의 발전을 개별 시편들의 기본 본문(Grundtext)으로부터 그것들의 편집적인 새로운 강조를 거쳐 종합적인 의미 부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의미는 초기 단계인 짧은 기도문부터 다소 복잡한 후대의 문학적 본문까지 이스라엘의 기도의 역사와 동시에 이스라엘-유대교적 종말론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한 통찰을 결과물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따라서 자료 비평(Literarkritik)의 도움으로 시편 내부에서 혼합된 양식을 분류하고 편집 비평(Redaktionskritik)의 도움으로 그것들의 종합적인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시편 49편의 분석

### 2.1. 시편 49편

#### 표제: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1절: 만민들아 들으라<sup>25)</sup>,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

시편은 자신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발전의 발자취를 갖고 있다.”

24) O. Kaiser, *Grundriß der Einleitung in die kanonischen und deuterokanonischen des Alten Testaments* 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94), 27.

25) ‘쉬므우’(שִׁמְעוּ) 명령형, 들으라)는 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시편의 시작이다. 이 단어는 전형적인 지혜 요소이다(예, 잠 1:8; 2:1; 3:1; 4:1, 20; 5:1; 7:1; 욥 33:1; 34:2, 10, 16).

- 2절: 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생각은 명철이다.  
 4절: 나는 격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수금으로 나의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5절: 죄악이 나의 발자국을 에워쌀<sup>26)</sup> 때, 내가 어찌<sup>27)</sup> 환난의 날에<sup>28)</sup> 두려워하랴?<sup>29)</sup>  
 6절: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고<sup>30)</sup>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7절: 참으로<sup>31)</sup> 자신<sup>32)</sup>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속전<sup>33)</sup>을 바치지 못할 것이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위한 속전은 너무 비싸서 영영히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9절: 그는 영원할 것이고, 무덤을 보지 못할 것이다.<sup>34)</sup>

- 26) ‘에워쌌니’(כָּסַבְנִי, 에워싸다)는 개인 탄원시에서 종종 발견되는 표현이다(예, 적이 에워싸다-시 17:10; 109: 3; 짐승이나 개가 에워싸다-시 22:12, 16; 공포가 에워싸다-시 88:17).
- 27) 왜-질문 형식은 개인 탄원시에서 흔히 나타난다(예, 시 10:1; 22:1; 42:10; 43:2; 88:14).
- 28) ‘비메이 라’(בִּימֵי רָעָה, 환난의 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첫 번째는 ‘죽음의 날’(K. Seybold),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날’이다(H. Delkurt). 델쿠어트는 이것을 아모스서에(암 5:18-20; 6:3) 나타나는 야훼의 날과 연결하여 생각한다. ‘환난의 날’이라는 표현도 개인 탄원시에서 나타난다(시 27:4; 41:1; 59:16; 77:2; 86:6; 102:2).
- 29) ‘이라’(יָרָא) 역시 탄원시에서 볼 수 있다(시 3:6; 27:1, 3; 56:4, 11; 118:6).
- 30)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시편 52:8, 62:10, 욥기 22:24, 잠언 11:28, 18:11, 집회서 5:1, 예레미야 9:22, 48:7, 49:4, 에스겔 28:4에 나타난다. A. Schmitt,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Alten Testament*, 208f.에 의하면 경건한 가난한 자와 악한 부자의 대비는 개인 탄원시의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고 한다.
- 31) ‘아흐’(אָחַז, 형제)를 15절과 연결하여 אָחַז(참으로)로 고쳐 읽는다. 참고,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25.
- 32) ‘이프테’(פִּדְתָּה, 그는 구원 받을 것이다)를 ‘이페테’(פִּדְתָּה, 그는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로 읽는다.
- 33) ‘속전’이라는 개념은 희생 제의를 생각나게 한다(예, 출 21:29 이하; 레 4:2-4; 민 15:22-29).
- 34) 호스펠트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이해한다(F. 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305):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가 무덤을 보지 않을 수 있을

- 10절: 저가 보리로다.<sup>35)</sup> 지혜자도 죽고, 우매하고<sup>36)</sup> 무지한 자<sup>37)</sup>도 같이 망할 것이고, 그들의 재물을 타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 11절: 그들의 무덤들이<sup>38)</sup>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영원할 것이고, 사람들은 땅위에서 그들의 이름을 외칠 것이다.
- 12절: 재물 있는 사람은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sup>39)</sup> 그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다.
- 13절: 이것이 그들의 길이고, 그들의 길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후세 사람은 그들의 말<sup>40)</sup>을 좋아할 것이다. 셀라
- 14절: 짐승 같이 그들은 스올로 내려갈 것이고 죽음이 저희를 인도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sup>41)</sup> 정직한 자가 그들을

---

것인가?” 『개역』은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로 번역하였으나 『개역개정』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로 번역하여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 35) ‘키 이르에’(כִּי יִירָא)와 함께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여기에서 새로운 부분이 시작된다.
- 36) ‘케셀’(כֶּסֶל)은 13절에서 다시 나오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을 의미한다.
- 37) M. Grimm, “Menschen mit und ohne Geld. Wovon spricht Ps 49?” BN 96 (1996), 45: ‘바아르’(בַּעַר)의 기본적인 의미는 짐승이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을 의미한다. 시편 73:21에서는 지혜 없는 자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 단어는 지혜적 단어이다 (시 73:21; 92:7; 12:1; 30:2).
- 38) LXX를 따라 ‘그들의 무덤들’[‘키르밤’(קִרְבָּם)]이 아닌 ‘케바림’(קְבָרִים)]로 읽는다. 참고,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27. 무덤으로써의 집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나게 한다.
- 39) 이 의미는 아마도,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일 것이다.
- 40) ‘파’(פֶּה)는 단어적으로 입 또는 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유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잠언에서 ‘파’는 미련과 연관되어 나타난다(잠 15:14; 26:7, 9; 비교, 10:8, 10, 14, 18; 14:7; 18:6 이하; 19:1; 22:11-18; 26:4-6; 전 5:2 이하).
- 41) ‘랍보케르’(רַב־כֶּהֱרִ)는 ‘아침에’를 의미한다. 거기에는 희망과 신뢰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아침에’ 모티브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아침 제의를 생각나게 한다(비교, 시 46:6; 59:17; 13:6; 143:8; 왕하 3:20; 16:15; 대상 9:27; 16:40; 대하 2:3; 에스더 3:3; 욥 1:2).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형태는 소멸될 것이고, 스올이 그들의 집이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스올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는 나를 확실히 받아주실 것이다. 셀라.

16절: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집의 영광이 커졌을 때, 너는<sup>42)</sup> 두려워하지 말아라.<sup>43)</sup>

17절: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절: 그가 살았을 때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19절: 그는 그의 조상들의 열조에게로 갈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sup>44)</sup>

20절: 사람이 부자이나 깨닫지<sup>45)</sup> 못하면 짐승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다.

## 2.2. 시편 49편의 구성

현재 형태의 시편 49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표제어

#### 1-4절(지혜 요소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층)

1-2절: 부름

3-4절: 이어지는 지혜적 설명을 위한 서론

42) 여기에서 1인칭에서 2인칭으로의 인칭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탄원시에 서 볼 수 있다(시 22:23, 26; 31:23, 24; 42:5; 55:22; 66:15; 69:33).

43) ‘두려워하지 마라’는 표현은 지혜가 아니라, 제의 본문에서 흔히 사용된다.

44) 이 부분은 6절 하반절과 평행을 이루며 여기에서 의미가 분명해진다(비교, 욥 33:29, 29).

45) 지혜자는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면’이라는 말로 그의 해석과 가르침을 끝맺는다.

### 5-20절

5-9절(탄원시로써 첫 번째 층)

아무도 재물을 통해 구속받을 수 없다.

10-14절(지혜 요소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층)

재물의 허무함

15절(종말론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층)

16-19절(탄원시로서 첫 번째 층)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20절(지혜 요소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층)

### 2.3. 자료 비평적 고찰(Literarkritische Überlegungen)

시편 49편에 대한 자료 비평적 이해는 시편 49편이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시편 49편의 의미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2.3.1. 표제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시편의 표제어가 후대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시편 49편의 표제어는 기본 층에 속해 있으며, 탄원시의 특징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표제어와 함께 첫 번째 층인 탄원시가 쓰였고, 후대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이 첨가되었더라도 표제어는 계속 시편 49편의 표제어로 남게 되었다. 시편 49편의 최종 형태는 제의와 관련성은 적다. 이 때문에 시편과 표제어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 49편의 표제는 이 시가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시편 49편의

표제는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니고, 시편의 기본 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2.3.2. 1-4절

시편 49편 1-4절은 서론이다. 1절 전반절의 지혜 요소를 가진 주의 를 요청하는 부름(Aufmerksamkeitsruf)과 함께 시작하는 이 부분은 지혜 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1절은 가르침을 여는 부분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주의를 요청하는 부름인 1절은 지혜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며 이것은 잠언의 후대 층에서 발견되어 진다.”<sup>46)</sup> 굴더(S. U. Gulder) 도 이와 유사하게 주장한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시편 49:1-4절에서 결정적인 양식사적 증거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가르침을 위한 작품으로써 명령형을 통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sup>47)</sup> 뿐만 아니라 3-4절에서 전형적인 지혜적인 단어들의 반복이 나타난다: ‘호크모 트’(חכמות, 지혜), ‘하구트’(הנות, 생각), ‘테부노트’(תבונות, 명철), ‘마 살’(משל, 격언), ‘히다타’(חידה, 수수께끼). 이와 유사하게 사이볼트(K. Seybold)도 강조한다. “시편 기자는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를 가르 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학교 지혜는 자신의 ‘마음’으 로 묵상하고 숙고하고 있다. 즉, 인식으로써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1절의 ‘할레드’(הלל, 세상의)라는 단어의 사용은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1) 저자는 청중을 확대하려고 한다. 2) 저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다.<sup>49)</sup> 또한 1-4절에 나타난 허무

46)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Tod und Hoffnung gegen den Tod in Ps 49 und bei Kabelet*, BThSt 5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2005), 26f. 예를 들어, 잠언 1:8; 4:1, 10, 20; 5:1, 7; 7:24; 비교하라. 2:1 이하.

47) Gulde, S. U., *Der Tod als Herrscher in Ugarit und Israel*, 189.

48) K. Seybold, *Die Psalmen*, 200.

49)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Zürich/Freiburg: Pano Verlag, 2000), 62; H. Delkurt, “Der

함의 주제는 전도서를 생각나게 한다. 따라서 1-4절은 매우 후대에 기인하는 지혜 작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3.3. 5-9절

1-4절과 5-9절의 차이점은 내용적인 면에 있다. 앞부분은 우선 가르침을 얻 후에 지혜 작품의 형식 안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반면,<sup>50)</sup> 5-9절은 탄원시이다. 즉, 5절에서부터 본문의 연속성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연속성은 시편 49편이 후대에 편집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10절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혜 요소보다는 탄원시적인 요소가 있는 5-9절은 독립된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람마’(למָה, 5절의 왜-라는 질문)는 탄원시(특별히 개인 탄원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sup>51)</sup>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기도자의 위급한 상황이 표현된다.<sup>52)</sup> 5절의 ‘이라’(אֵיךְ, 내가 두려워하라) 또한 탄원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sup>53)</sup> 7절의 ‘파다’(פָּדָה, 속죄하다)는 제의라는 삶의 자리를 갖고 있으며 탄원시에서 자주 발견된다.<sup>54)</sup>

### 2.3.4. 10-14절

10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혜 요소가 발견된다.<sup>55)</sup> 따라서 탄원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5-9절과 지혜 요소

---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30.

50) 잠언 1:22; 4:3, 23; 5:3; 6:23; 7:4.

51) 시편 10:1; 22:2; 42:10; 43:2; 88:15.

52) H.-J. Kraus, *Psalmen 1-59*, BK.AT XV/1.2, 6th e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89), 520.

53) 시편 3:7; 27:1, 3; 56:5, 12; 118:6.

54) 시편 26:11; 31:6; 55:19; 69:19; 71:23.

55) K. Seybold, *Die Psalmen*, 202: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지혜적 평가의 전형적인 생각이다: 교육받은-교육받지 못한, 무지한 자-짐승같은 자-우매한자.”

를 갖고 있는 10-14절 사이에는 양식적인 차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10절 처음 부분에 ‘키 이르에’(כִּי יִרְאֶה, 저가 보리로다)와 함께 의미론적으로 새로운 뉘앙스가 발견된다. 표제어처럼 사용된 ‘키 이르에’와 함께 새로운 의미가 시작되길 준비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유를 밝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가 보았는데”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키’(כִּי)를 통해서 저자는 자신의 청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즉, 앞부분의 5-9절을 위한 설명이나 주석이 시작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도서에서도 10절의 형식을 볼 수 있다.<sup>56)</sup>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지혜적인 단어들이 나온다.<sup>57)</sup> ‘하카뎀’(חַכְמִים, 지혜 있는 자), ‘케셀’(כֶּסֶל, 우준한 자). 이와 같은 지혜자와 우준한 자의 구별은 10-14절의 저자가 지혜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슈미트(A. Schmitt)는 10절의 지혜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절 전반절은 지혜자와 우준한 자, 즉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비슷한 생각이 다음의 지혜 본문에서도 발견된다: 전도서 2:14-16; 3:20; 8:8; 9:2 이하; 지혜서 7:5 이하; 집회서 14:17; 41:3 이하. 무엇보다 중요한 본문은 전도서 2:14-16이다. 왜냐하면 전도서 2:16과 시편 49:10은 단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지혜자(חַכְמִים)와 우매자(כֶּסֶל)의 죽음(מוֹת). 10절 후반절에 의하면 부자는 죽을 때 자신의 재물을 갖고 갈 수 없다. 이러한 생각 역시 성서의 다른 지혜 본문에서 볼 수 있다: 전도서 6:1 이하; 집회서 11:19; 14:15; 비교, 전도서 2:18; 누가복음 12:19-21.<sup>58)</sup>

56)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305;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90: “10절에서는 보다(רָאָה)라는 단어를 통해 전형적인 지혜적 단어 선택이 나타난다. 이것은 후대의 지혜 본문, 특히 전도서에서 볼 수 있다(전 2:13, 24; 3:10, 16, 22; 4:1, 4, 7, 15; 5:7, 12, 17; 6:1; 7:15; 8:9, 10; 9:11, 13; 10:5, 7; 욥 4:8; 5:3; 13:1; 시 37:25, 35 비교).”

57) P. C. Craigie, *Psalms 1-50*, WBC (Waco: Word Books, 1983), 359;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305.

58) A. Schmitt,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14절[‘카촌 리세을 샤투 마웨트 이르엠’(כָּצֹן לְשֹׂאֵל שָׁתוּ מֵוַת יִרְעָם)], 짐승 같이 그들은 스올로 내려갈 것이고 죽음이 저희를 인도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다.]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의인화 역시 지혜 본문에서 볼 수 있다(비교, 욥 18:14). 뿐만 아니라 14절에 나타나는 목자의 이미지 역시 후대에 나타난다.<sup>59)</sup>

### 2.3.5. 15절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5절을 시편 49편과는 독립된 구절로 보고 있다.<sup>60)</sup> 비록 14절과 15절이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10-14절에서는 자신의 부를 의지하는 자들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스올로 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지혜자는 14절에서 자신과 다른 원수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반면에 15절에서는 1인칭의 형식(Ich-Aussage)으로 나타나는 신뢰의 고백을 볼 수 있다(그

---

*Alten Testament*, 205f.

59) S. U. Gulde, *Der Tod als Herrscher in Ugarit und Israel*, 206ff.

60)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210; M. Witte, “Aber Gott wird meine Seele erlösen,” *Tod und Leben nach Psalm xlix*, VT 50 (2000), 549;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98; S. U. Gulde, *Der Tod als Herrscher in Ugarit und Israel*, 199; 비교하라, B. Duhm, *Die Psalmen*, KHC, 2nd ed. (Tübingen: Mohr, 1922), 204; P. A. Munch, “Das Problem des Reichtums in den Psalmen 37. 49. 73,” ZAW 55 (1937), 45; P. Volz, 1937, “Psalm 49,” ZAW 55 (1937), 247; Ch. A. Briggs, *Psalms 411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ICC (Edinburgh: Clark, 1969), 411;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300; K. Liess, *Der Weg des Lebens. Psalm 16 und das Lebens- und Todesverständnis der Individualpsalmen*, FAT II/5 (Tübingen: Mohr Siebeck, 2004), 125;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Tod und Hoffnung gegen den Tod in Ps 49 und bei Kabelet*, 24; A. Schmitt,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Alten Testament,” 249.

러나 16절에서는 2인칭이다).<sup>61)</sup> 결과적으로 말해서 14절은 지혜 요소가 있는 두 번째 층으로 볼 수 있으나 15절은 그렇지 않다. 뿐만 아니라 “5-14절 그리고 16-20절에서 재산(소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15절에서는 그렇지 못하다.”<sup>62)</sup>

### 2.3.6. 16-19절

이 부분은<sup>63)</sup> 5-9절과 평행을 이룬다. 이미 5절에서 보았다시피 여기에서도 역시 ‘이라’(אֵל)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16절 전반절에서는 1인칭에서 2인칭으로 인칭이 변화된다[‘티라’(אֵלֶיךָ), 너는 두려워하라]. 이러한 변화는 탄원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sup>64)</sup>

### 2.3.7. 20절

이 절은 12절과 평행을 이루고 시편 49편을 마무리하고 있다. 12절과 20절은 시편 49편의 후렴구이다. 이러한 후렴에서 지혜 양식을 볼 수 있다.<sup>65)</sup>

61) K. Seybold, *Die Psalmen*, 203;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Tod und Hoffnung gegen den Tod in Ps 49 und bei Kobelet*, 24, 54;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98.

62)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55.

63)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83은 “16절 전반절의 2인칭 형식의 부름은 분명히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다.

64) 시편 22:23, 26; 31:24, 25; 43:5; 55:23; 66:16; 69:33 비교.

65) 비교, 전도서 3:18-21. K. Seybold, *Die Psalmen*, 203;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93; H. Delkurt, Mensch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63.

## 2.4. 편집사적 고찰(Redaktionsgeschichtliche Überlegungen)

여기에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자료 비평을 바탕으로 시편 49편의 편집사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필자는 성장(Wachstum)과 관련하여 시편 49편을 두 번의 성장이 있는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 2.4.1. 첫 번째 층

시편의 초기 형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갖고 있다: 탄원, 간구, 찬양 그리고 감사. 따라서 지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시편 49편의 원래 형태가 탄원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가 본래 탄원시에서 지혜시로 성장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필자는 첫 번째 층(시편 49편의 기본 층)을 5-9절과 16-19절로 본다. 내용적으로 이 두 부분은 충돌하지 않으며 양식적으로 (아마도 탄원시로 구전되었던) 개인 탄원시에 속한다. 탄원시는 제의적인 면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룹의 본문으로 볼 수 있으며,<sup>66)</sup> 이것의 삶의 자리는 포로 후기의 제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을 포함한 고라시의 수집이 적어도 4세기 중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67)</sup>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시편 49:6의 “왜-질문”과 “악한 날” 그리고 “에워싸다”라는 표현.

66) 시편 49편의 표제어가 기본 층에 속해 있고 이러한 기본 층이 탄원시의 형식을 갖고 있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표제에 따라 고라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고라인은 레위의 후손이다(출 6:21; 민 25:58; 대상 6:7). H.-J. Kraus, *Psalmen 1-59*, 474: “포로기 이후 고라인은 성전 종사자였다. 처음에 그들은 성전 문지기였다(대상 9:19, 26:1, 19). 후에 성전 성가대가 되었다(대상 20:19). 만약 시편에 고라인의 노래가 전승되었다면 이 시의 저자는 고라인으로 돌리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K. Seybold, *Die Psalmen*, 6 비교,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Psalm 1-50*, 268.

67) K. Seybold, *Die Psalmen*, 6; E. Zenger, “Das Buch der Psalmen,”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7th ed. (Stuttgart: Kohlhammer, 2008), 365.

2) 5절과 17절의 ‘이라’(יִרָא)라는 단어는 탄원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3) 7절에서 ‘파다’(פָּדָה)라는 동사(구속하다) 역시 탄원시에서 볼 수 있으며(비교, 시 26:10; 31:5; 55:18; 69:18; 71:22) 제의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용되었다.

4) 16절에서 1인칭에서 2인칭으로의 인칭 변화가 일어난다[‘티라’(תִּירָא), 너는 두려워하라]. 이러한 인칭 변화(Sprechrichtungswechsel)는 탄원시에서 볼 수 있다.<sup>68)</sup>

#### 2.4.2. 두 번째 층

두 번째 지혜적인 층은 1-4절과 10-14절 그리고 20절이다. 두 번째 층은 기본 층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지혜 편집 층이다.<sup>69)</sup> 이 층의 삶의 자리는 수업이나 설명하는 상황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70)</sup> 편집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모티브를 설명(주석)하고 있으며

68) 비교, 시편 22:23, 26; 31:23, 24; 42:5; 55:22; 66:15; 69:32. 인칭 변화의 기능은 ‘개인 시에서 민족 시로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시편 22:22 이하 구절에서 공동체에서(22절) 전체 이스라엘로(23절),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로 청중이 확대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인칭 변화의 기능은 다양한 청중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69) Chr. Levin “Das Gebetbuch der Gerechten. Literargeschichtliche Beobachtungen am Psalter,” *ZThK* 90 (1993), 358, 374는 시편이 후대에 지혜로 편집되었으며 이것의 삶의 자리는 제2 성전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라고 주장한다. W. Beyerlin, *Die Rettung der Bedrängten in den Feindpsalmen der Einzelnen auf institutionelle Zusammenhänge untersucht*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70), 106-110도 고전 시편에 후대 지혜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107편 22-31절과 32-42절이 지혜적 첨가이며 특히 뒷부분의 저자가 지혜자라고 추측하며, 이 부분의 삶의 자리를 성전 학교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의 학자들도 이것에 동의하고 있다. M. Oeming, “Die Psalmen in Forschung und Verkündigung,” *VuF* 40 (1995), 42; O. Loretz, *Ugaritische und Jüdische Weisheit und Tod in Psalm 49*, UF 17 (Neukirchen: Neukirchener Verl., 1986), 212.

70) 비교, F. Stolz, “Psalmen im nachkultischen Raum,” *TbSt* 129 (1983), 28.

동시에 지혜자와 우준한 자를 삽입하고 있다. 이 층은 다른 지혜서와 관련이 있다(특히, 욥기와 전도서). 좀 더 정확히 삶의 자리를 말하자면 포로기 후기(기원전 약 3세기 프톨레미 시대) 시대의 학습의 장소일 것이다.<sup>71)</sup>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편 49편의 두 번째 층은 지혜 문학과 언어적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욥기와 관계: 1) 삶의 허무함(비교, 시 49:14; 욥 7:9), 2) 죽음의 의인화(비교, 시 49:14; 욥 18:14). 무엇보다 욥기 32-37장(엘리후의 말)과 평행을 이룬다: 1) ‘아하지누’(אֵיזֵנִי, 귀를 기울이라)와 함께 주의를 환기시키며 가르침을 여는 말의 형식(시 49:11; 욥 33:1; 34:2, 16), 2)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평준화시키는 것(시 49:10; 욥 33:6; 34:19), 3) 아침과 관련하여 교만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시 49:14; 욥 34:20, 25), 4)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시 49:10, 20; 욥 32:9; 33:13; 36:26; 37:23 이하). 시편 49편은 또한 내용적으로 모티브적으로 전도서와도 관련이 있다: 1) 죽음 앞에서 인간과 짐승의 차별 없음(비교, 시 49:12, 20; 전 3:18-20), 2) 각각의 사람 사이에 차별 없음(비교, 시 49:2, 10, 14; 전 9:1-3), 3) 재물의 허무함(비교, 시 49:10-11; 전 5:9-19), 4) 지혜의 허무함(비교, 시 49:10; 전 1:13, 16; 7:23-25; 8:16; 9:9, 11-12), 5) 내세에 관한 부정적인 이미지(시 49:14; 전 9:10).

#### 2.4.3. 세 번째 층

필자가 이미 말했듯이 15절은 시편의 다른 부분과 구분된다. 만약

71) M. Witte, “Aber Gott wird meine Seele erlösen, Tod und Leben nach Psalm xlix,” VT 50 (2000), 559;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96;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74.

이 부분이 없다고 해도 시편은 내용적으로 이미 완벽한 상태이다. 따라서 15절의 편집적 삽입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미 보았듯이 두 번째 층은 기본 층의 시를 설명하기 위한 지혜 편집층이다. 그러나 15절은 지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절이 두 번째 층의 편집 후에 삽입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외밍(M. Oeming)의 의견에 따르면 시편의 최종 편집은 기원전 약 100년경에 일어났다.<sup>72)</sup> 그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초기 묵시론적인 기대감의 반영을 말하고 있다.<sup>73)</sup> 차일즈(B. S. Childs) 역시 시편 전승이 내려오는 가운데 오래된 자료에 새로운 종말론적인 해석이 추가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74)</sup> 카이저(O. Kaiser) 역시 시편 49:15를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가 부분으로 보고 있다.<sup>75)</sup> 필자의 의견도 이들과 유사하다. 지혜자나 지혜자 그룹이 15절을 종말론적인 영향 아래에서 기원전 2세기 혹은 1세기 중엽에 기존의 시편에 추가시켰을 것이다.

후대에 첨가된 삽입물로서의 15절의 해석을 통해서 시편의 의미가 확대되었다(비교, 시 16:10). 이러한 후대 삽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할

72)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I*, 31-34. 비교하라, B. Duhm, *Die Psalmen*, XII; Chr. Levin, “Das Gebetbuch der Gerechten. Literargeschichtliche Beobachtungen am Psalter,” 355, 357; O. Kaiser, *Grundriß der Einleitung in die kanonischen und deuterokanonischen des Alten Testaments*, 24, 27.

73)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I*, 33; O. Kaiser, *Grundriß der Einleitung in die kanonischen und deuterokanonischen des Alten Testaments*, 24: “시편의 최종 형태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는 경건-기도의 책이었다.”

74) B. S. Childs, *Die Theologie der einen Bibel, Bd. I, aus dem Engl. übers. von Christiane Oeming* (Freiburg: Herder, 1994), 231f: “전통으로부터의 성장에서 중요한 한 가지 경향은 옛 자료에 종말론적인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전 탄원시는 이러한 새로운 빛 아래에서 재조명되었다. 이것은 당시 지혜의 주제였으며 희망과 인내라는 주제로 나타났다(시 49편과 73편). 또한 이것은 시편이 교육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75) O. Kaiser, “Der biblische Weg zum Glauben an das ewige Leben,” *Trames* 11 (2007), 237: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나타났다[예, 시 1:4-5; 49:15; 73:22-25; 욥 19:25-27; 전 12:14; 사(소위 이사야 묵시) 24-27; 단 12:1-3].

수 있다. 우선, 희망의 확대이다. 현세적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이 미래로 확대되었고 내세에 대한 희망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비록 여기에서 죽음 전(vor)의 구원이나, 아니면 죽음으로부터(aus)의 구원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논쟁 중이더라도,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 구원(‘라카흐’, קָחָה)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sup>76)</sup>

비록 여기에서 기도자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묘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현세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고 있다. 델쿠르트(H. Delkurt)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도자는 원수로 가득 찬 현세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원하고 있다.”<sup>77)</sup>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기도자의 확신은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두려움(5-9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부유한 원수들 때문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경건자들에 대한 구속의 약속을 통해 성전 혹은 내세에서의 가난한 자에 대한 위로가 확대된다.

두 번째로 보상 윤리가 확대된다. 현세의 경건한 행동이 죽음 이후의

---

76) 죽음 전의 구원이라는 의견: K. Seybold, *Die Psalmen*, 203; M. Grimm, “Menschen mit und ohne Geld. Wovon spricht Ps 49?” 49;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33. 죽음 후의 구원이라는 의견: P. Volz, “Psalm 49,” 250; U. Kellermann, “Überwindung des Todesgeschicks in der alttestamentlichen Frömmigkeit vor und neben dem Auferstehungsglauben,” *ZthK73* (1976), 275; A. A. Fischer, *Tod und Jenseit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2005), 161; H.-P. Müller, “Art.: Apokalyptik,” *RGK*, 4th ed.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552; Chr. Forste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weisheitlichen Psalmen*, 128, 136; B. Ego, “Seine Tage gehen dahin wie ein Schatten: Zur Vergänglichkeitsmotivik in den Psalmen,” M. Bauks, K. Liess, P. Riede, eds., *Was ist der Mensch, dass du seiner gedenkst? (Psalm 8,5). Aspekte einer theologischen Anthrop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2008), 89.

77)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58.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묘사로 보상 윤리가 확대된다. 이와 유사하게 포러(G. Fohrer)는 “시편 49편에는 경건한 가난한 자와 고난 받는 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것은 죽음 이후인 내세를 기대하게 한다.”<sup>78)</sup>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15절은 시편 49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층이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스라엘의 매우 후대의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살펴보자면: 1) 15절에서는 5-14절과 16-20절과 같은 소유물에 관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종말론과 연결된다. “15절은 개인 고백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연결시킨다.”<sup>79)</sup> 2) 죽음으로 부터의 의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묘사. 3) 보상에 대한 묘사. 이러한 생각은 특히 예녹서와 관련이 있다.<sup>80)</sup> 이것은 부활과 보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기원전 2세기나 1세기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81)</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편 49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비평과 편집 비평은 시편 49편이 원래 형태(탄원시)에서 두 번의 성장으로 인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번의 성장은 단순한 후대 삽입이 아니라, 기존의 본문에 대한 지혜자의 섬세한 편집이다. 따라서 시편 49편은 단순한 “섞임”이 아니라 확대된 ‘통일체’이다.

78) G. Fohrer, *Psalmen*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3), 210.

79) H. Delkurt,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103.

80) 예녹서 98:9-10에서는 우매한 자와 악한 자가 내세의 심판을 통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며, 예녹서 102:4-103:4에서는 의로운 자는 내세의 보상의 받게 된다고 말한다. 비교, M. Witte, “Aber Gott wird meine Seele erlösen, Tod und Leben nach Psalm xlix,” 557-558; M. Hengel,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 des 2. Jh.s. v. Chr.* (Tübingen: Mohr Siebeck, 1973), 361.

81) 비교, 다니엘 12:2-3, 13; 마카베오 2서 7:9, 11, 14; 12:43-44.

## 2.5. 시편 49편에 있는 탄원시에 대한 고찰

5절: 죄악이 나의 발자국을 에워쌀 때 내가 어찌 환란의 날에 두려워 하랴?

6절: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자는

7절: 참으로 자신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이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위한 속전은 너무 비싸서 영영히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9절: 그는 영원할 것이고, 무덤을 보지 못할 것이다.

16절: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집의 영광이 커졌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7절: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들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절: 그가 살았을 때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19절: 그는 그의 조상들의 열조에게로 갈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시편 49편의 탄원시 부분이다.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5-9절과 16-19절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다. 5절에서 기도자는 말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에우는 환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 하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자가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sup>82)</sup> 5-9절에 나타난 기도자의 심리 상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

---

82) 김이곤과 이태훈은 5절에서의 화자가 시인이 아니라, 부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이곤, 『시편주석 I』,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25; 이태훈,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재물과 지혜,” 「그말씀」 219 (2007), 59. 이에 반해 김정우는 시인의 말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23. 필자는 김정우의 의견에 동의한다.

다. 왜냐하면 9절이 의문문으로 읽혀질 수 있다면 자신의 원수인 부자들의 운명에 아직 확신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자신의 앞으로의 상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도자는 16절에 가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이 위협적인가? 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기도자는 16절 이하를 통해서 응답받는다.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환난의 날은 심판의 날(구원 신탁에서)을 의미한다. 5절의 환난의 날은 기도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날이다.<sup>83)</sup> 기도자는 심판의 날(혹은 제의)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속전(Lösegeld)이 없다. 반면에 부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속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부자이거나 자신의 집이 크다고 자랑할 때(16절)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자신을 결코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이다.”(7절).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17절). 9절은 하나의 질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 구절은 앞부분과 대치되는 내용을 갖고 있다. 기도자는 19절을 통해 응답받고 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의 열조에게로 갈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19절)

## 2.6. 시편 49편의 최종 형태에서 지혜시와 탄원시의 관계

지혜 부분(1-4, 11-14, 20절)은 기본 층, 즉 탄원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편집자는 시편 49편의 시편 기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이 안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신학을 펼쳐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1절

83) 비교, 이사야 24:1-6, 17-20; 26:20-27:1.

이하의 서론 부분에서 시편의 수신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는 단지 본문 안에서 다루어진 상대자(2절)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말을 거는 대상인 사회의 모든 계층-지혜 있는 자, 우준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1절). 10-14절에서 지혜자는 기본 층(5-9절, 16-19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2절과 20절에서는 인간의 헛된 명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마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청중에게 말을 하고 있다. 11절에서는 부자들이 그들의 재물을 의지하는(6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부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물은 영원할 수가 없다(12, 17절).

## 7. 결론

양식 비평에 따르면 시편 49편은 지혜시에 속한다. 그럼에도 시편 49편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양식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고 있다. 시편 49편은 탄원시, 지혜, 종말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의 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처음 단계에서 시편 49편은 탄원시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혜시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혜시에 종말론적인 개념이 추가되었다. 시편 49편의 연대와 관련하여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시편 49편의 첫 번째 층이 기원전 5-4세기에 형성되었고, 두 번째 층이 기원전 3세기경에 지혜적인 그룹에 의해서 추가되었다. 당시 시편은 이미 숙고하고 논쟁했던 주제들과 그러한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sup>84)</sup> 뿐만 아니라 이 시는 단지 이론적인 지혜시가 아니라, 당시 시대의 종말론

84) 제2 성전 시기의 지혜자 그룹의 형성에 있어서 그들이 숙고하고 논쟁하였던 문제들은 죽음의 보편성, 인간의 능력과 허무함, 인간의 사회적, 이성적, 종교적 분류였다. “M. Witte, Aber Gott wird meine Seele erlösen,” 554.

적 초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sup>85)</sup>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는 15절이 기원전 2-1세기경에 세 번째 층으로 삽입됨으로서 일어났다.

이러한 필자의 결론은 편집사, 편집 비평적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시대와 삶의 자리의 요구에 따른 신학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편집사적 연구를 통해 후기 유대 지혜 문학의 사상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단순한 개인 탄원시를 바탕으로 포로 후기 지혜자는 당시의 주된 문제였던 인간의 죽음과 허무함을 주제로<sup>86)</sup> 자신 앞에 놓인 시를 해설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자가 당시 사회-제도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번의 편집을 확인하면서 일어난다. 바로 이러한 지혜자의 숙고가 마지막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편 49편의 세 번째 층인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혜와 종말론이 결합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지혜와 종말론이 결합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당시 인간론적인 문제(즉, 삶의 의미와 목적)에 직면한 지혜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sup>87)</sup>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보여주려 하였다. 이들은 결국 현세의 것을 뛰어 넘는(현세적인 성격이 강한 과거 잠언, 특히, 잠언 10-29장과 같은 전통 지혜와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현세의 문제를 해결하려

85) H.-J. Kraus, *Psalmen 1-59*, 519; J. Lindblom, "Die Eschatologie des 49. Psalms," *Horae Soederblomianae* (Uppsala: C. W. K. Gleerup, 1944), 21-27에서 지혜적 편집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교, O. Kaiser, *Grundriß der Einleitung in die kanonischen und deuterokanonischen des Alten Testaments*, 24, 26.

86) 시편 49편의 두 번째 층과 같은 시대에 쓰인 전도서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87) 이것에 대해서 2.4.2.를 참조하라.

하였다. 이러한 지혜적 종말론이 과거 예언자적 종말론과 다른 점은 과거의 종말론이 단체적 성향(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이 강하였다면, 지혜적 종말론에서는 개인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성향은 개인 경건과 육·혼·분리와 연결되어 나타난다.<sup>88)</sup>

두 번째로 우리가 편집사적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놓인 마지막 편집본인 성경 본문의 그 의미와 신학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편집사적 연구는 최종 형태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시편 49편의 신학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언급하였듯이, 시편 49편은 지금까지 지혜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편집사적 연구를 통하여 시편 49편의 최종 형태는 지혜가 아니라 종말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편 49편은 지혜시가 아니라 ‘종말론 시’로 불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집사적 연구를 통해서 현실의 절망에서-시편 49편 안에 있는 최종 편집을 통해 일어났던-종말론적 희망을 보았던 지혜자의 시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편 49편의 신학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편 49편의 신학은 희망이다. 시편 49편이 처음에는 탄원, 즉 현실의 절망과 원망에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에서 이 시편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 <주요어>

시편 49편, 양식, 편집 비평, 탄원, 지혜, 종말

### <Key Words>

psalm 49, form, redaction criticism, entreaty, wisdom, eschatology

\* 접수일 2011년 8월 25일, 수정일 2011년 8월 2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0월 4일

---

88) 개인 경건과의 연결은 다니엘 12: 1-3; 시편 49:15; 73:24; 육·혼·분리와의 연결은 욥기 16:19-21; 19:25-27; 전도서 12:7; 집회서 40:11; 지혜서 3:1-10을 각각 참조하라.

### 참고문헌

- 김이곤, 『시편주석 I』,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우, 『시편 89편: 그 문학과 신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39-74.
- 김정우, “히브리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7-40.
- 이태훈,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재물과 지혜,” 『그말씀』 219 (2007), 58-64.
- Beyerlin, W., *Die Rettung der Bedrängten in den Feindpsalmen der Einzelnen auf institutionelle Zusammenhänge untersucht*, Göttingen: Vandenhoeck u. Ruprecht, 1970.
- Briggs, C. A. and Briggs, E. Grac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ray on the Book of Psalms*, ICC, Edinburgh: Clark, 1969.
- Casetti, P., *Gibt es ein Leben vor dem Tod? Eine Auslegung von Ps49*, OBO 44, Freiburg(Schweiz): Universitätsverl., 1982.
- Childs, B. S., *Die Theologie der einen Bibel, Bd.I, aus dem Engl. übers. von Christiane Oeming*, Freiburg: Herder, 1994.
- Craigie, P. C., *Psalms 1-50*, WBC, Waco: Word Books, 1983.
- Croft, S. J. L., *The identity of the individual in the psalms*, JSOT.S 44, Sheffield: JSOT, 1987.
- Delkurt, H., “Der Mensch ist dem Vieh gleich, das vertilgt wird,” *Tod und Hoffnung gegen den Tod in Ps49 und bei Kobolet*, BThSt 5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2005.
- Duhm, B., *Die Psalmen*, KHC, 2nd ed., Tübingen: Mohr Siebeck, 1922.
- Ego, B., “Seine Tage gehen dahin wie ein Schatten: Zur Vergänglichkeitsmotivik in den Psalmen,” M. Bauks, K. Liess, P. Riede, eds., *Was ist der Mensch, dass du seiner gedenkst?(Psalm 8,5). Aspekte einer theologischen Anthropolog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2008, 77-91.
- Fischer, A. A., *Tod und Jenseits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2005.
- Fohrer, G., *Psalmen*, Berlin/NewYork: de Gruyter, 1993, 203-210.
- Forster, Chr., *Begrenztes Leben als Herausforderung: Das Vergänglichkeitsmotiv in*

- weisheitlichen Psalmen*, Zürich/Freiburg: Pano Verlag, 2000.
- Goulder, M. D., *The Psalms of the Sons of Korah*, JSOT.S 20, Sheffield: JSOT, 1982.
- Grimm, M., “Menschen mit und ohne Geld. Wovon spricht Ps 49?” *BN* 96, München: Görg, 1996, 38-55.
- Gulde, S. U., *Der Tod als Herrscher in Ugarit und Israel*, FATII/22,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 Gunkel, H. and Begrich, J., *Einleitung in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33.
- Hengel, M., *Judentum und Hellenismus, Studien zu ihrer Begegn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Palästinas bis zur Mittedes 2. Jh.s. v. Chr.*, Tübingen: Mohr Siebeck, 1973.
- Hossfeld, F.-L. and Zenger, E., *Die Psalmen I. Psalm 1-50*, NEB 29, Würzburg: Echter-Verl., 1993.
- Kaiser, O., *Grundriß der Einleitung in die kanonischen und deuterokanonischen des Alten Testaments* 3,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94.
- Kaiser, O., “Der biblische Weg zum Glauben an das ewige Leben,” *Trames* 11, Frankfurt. M.: Estonian Academy Publishers, 2007, 227-250.
- Kellermann, U., “Überwindung des Todesgeschicks in der alttestamentlichen Frömmigkeit vor und neben dem Auferstehungsglauben,” *ZthK* 73, Tübingen: Mohr Siebeck, 1976, 259-282.
- Kraus, H.-J., *Psalmen 1-59. 60-150*, BK.AT XV/1.2, 6th e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 1989.
- Levin, Chr., “Das Gebetbuch der Gerechten. Literargeschichtliche Beobachtungen am Psalter,” *ZThK* 90, Tübingen: Mohr Siebeck, 1993, 355-381.
- Liess, K., *Der Weg des Lebens. Psalm 16 und das Lebens- und Todesverständnis der Individualpsalmen*, FAT II/5,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Lindblom, J., “Die Eschatologie des 49. Psalms,” *Horae Soederblomianae*,

- Uppsala: C. W. K. Gleerup, 1944, 21-27.
- Loretz, O., *Ugaritische und Jüdische Weisheit und Tod in Psalm 49*, UF 17, Neukirchen: Neukirchener Verl., 1986, 189-212.
- Mowinkel, S.,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D. R. Ap-Thomas, trans.,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1962.
- Müller, H. -P., "Art.: Apokalyptik," *RGG*, 4th ed., Tübingen: Mohr Siebeck, 2005, 1552-1553.
- Munch, P. A., "Das Problem des Reichtums in den Psalmen 37. 49. 73," *ZAW* 55, Berlin/New York: de Gruyter, 1937, 36-46.
- Oeming. M., "Die Psalmen in Forschung und Verkündigung," *VuF* 40,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5, 28-51.
- Oeming. M., *Das Buch der Psalmen I. Psalm 1-41*, NSK.AT 13/1,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2000.
- Raabe, P., *Psalmstructures*, JSOT.S 104, Sheffield: JSOT, 1990, 68-89.
- Perdue, L. G., "The riddles of psalm 49," *JBL* 93, Atlanta: Soc., 1974, 533-542.
- Pleins, J. D., "Death and Endurance: Reassessing the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y of Psalm 49," *JSOT* 69, Sheffield: JSOT, 1996, 19-27.
- Raabe, P., *Psalmstructures*, JSOT.S 104, Sheffield: JSOT, 1990.
- Schmitt, A., "Entrückung-Aufnahme-Himmelfahrt. Untersuchungen zu einem Vorstellungsbereich im Alten Testament," *fzb* 10,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73.
- Seybold, K., *Die Psalmen*, HATI/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Stolz, F., "Psalmen im nachkultischen Raum," *TbSt* 129, Waltrop: Spinner, 1983.
- Volz, P., "Psalm 49," *ZAW* 55, Berlin/New York: de Gruyter, 1937, 235-264.
- Weber, B., *Die Psalmen 1-72*, Stuttgart: Kohlhammer, 2001, 223-227.
- Witte, M., "Aber Gott wird meine Seele erlösen," *Tod und Leben nach Psalm xlix*, *VT* 50, Leiden: Brill, 2000, 540-560.
- Zenger, E., "Das Buch der Psalmen,"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7th ed., Stuttgart: Kohlhammer, 2008, 348-370.

<초록>

## 시편 49편의 편집사적 이해

박영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

시편은 다양한 양식(Gattung)을 갖고 있다. 특히 궁켈(H. Gunkel)과 모빙켈(S. Mowinckel)은 이러한 시편의 양식을 이스라엘의 삶과 연관지어 연구, 분류하여 시편 연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궁켈과 모빙켈의 양식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시편 연구가 시편의 연구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시편이 하나의 양식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각각의 시편은 하나의 순수한 양식이 아닌 여러 가지 양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 특히 만프레드 외밍(M. Oeming)은 이러한 시편 이해의 바탕 위에 시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논문은 기존의 궁켈과 모빙켈의 양식 비평 연구를 넘어서 시편 49편을 양식 혼합과 본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시편 49편의 각 발전 단계의 배경과 동기 그리고 저자를 밝히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시편 49편을 본문 비평, 언어 비평, 자료 비평 그리고 편집 비평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재구성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편 49편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두 번의 발전 단계를 거친다고 밝힌다. 이 시편의 원 형태는 탄원시이며(시 49:5-9, 16-19절), 그리고 후에 지혜 요소가 추가되고(시 49:1-4, 10-14절, 20절) 마지막으로 15절에 종말론적인 요소가 추가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편 49편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의 편집사적 발전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로써의 원 형태는 시편 49편 5-9절과 16-19절이며, 제의를

바탕으로 하는 성전 종사자에 의해 기원전 5-4세기에 형성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원전 3세기에 지혜 요소를 갖고 있는 1-4절과 10-14절, 20절이 지혜자에 의해 추가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원전 2-1세기에 종말론적 요소를 갖고 있는 15절이 추가되어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Abstract>

## A Redactional Understanding of Psalm 49

Dr. Young Joon Park  
(Heidelberg University)

There is many form in psalm. especially, H. Gunkel and S. Mowinckel were study and classify it with life style of Israel. and it helps to promote psalm study. it is true that the study of H. Gunkel and S. Mowinckel bring progress to study psalm. but, we have to remember this-psalm's form is not one type. each of the psalm has their own form. M. Oeming said-"psalm study is must to be based on these understanding of psalm."

This thesis over former criticism of Gunkel and Monwinckel's one. and it approach to psalm chapter 49 in the sight of pattern mixture and progress of the text. and reveal these thing - background and motive of the progress, auther of the text. that is the first purpose. writer renew the psalm chapter 49 by analysis it in text criticism, language criticism, and redaction criticism. with these analysis, writer discover that the text is divided into three part. and there was two progress phase. this psalm's basic form is about entreaty. (psalm 49:5-9 and verse 16-19). and then added some element of wisdom.

last, in verse 15, added element of eschatology.

Result of study is this-first, psalm 49 is performed in three part. and there was two redactional progress. basic form of first phase is psalm 49:5-9. and about 5, 4 B. C, second phase is added. wisdom element by the wise. (verse 1-4, verse 10-14, 20) and third phase, in about 2, 1 B. C. added element of eschatology. and that's the form of present psalm 49.